

# 4050총수시대, 新성장동력 위한 연말 통큰 조직개편

## 재계 대규모 세대교체

현대차 등 새 수장 사람들 중용  
삼성·SK, 시대 흐름 맞춰 인사  
한화, 수시 인사로 조용한 연말

연말 인사 시즌을 앞두고 국내 주요 그룹 임원들의 세대교체가 감지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LG그룹 등 40~50대 총수 시대를 맞은 그룹들이 연말 큰폭으로 인사와 조직을 개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총수가 바뀌었거나 복귀한 주요 그룹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조기 인사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새로운 총수 체제 확립과 신성장동력을 위한 조직 재편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주요 그룹들은 '세대 교체'를 추진할 전망이다. 올해 연말인사의 최대 관심은 현대차그룹과 LG그룹 그리고 포스코그룹이다.

◆**현대차·LG그룹·포스코 '새 술은 새 부대'**  
정몽구 회장을 보좌해 현대자동차그룹의 2인자로 떠오른 정 의선 총괄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고(故) 구본무 회장의 아들인 구광모 회장, 세계 5위 철강기업 포스코의 새로운 수장 최정우 회장 등이 자신과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을 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현대차그룹은 신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춘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아들인 정 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지난달 14일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전면에 나섰다. 정 수석 부회장은 윤여철, 김용환, 양웅철, 권문식 현대·기아차 부회장과 유우철 현대제철 부회장, 정태영 현대카드·캐피탈 부회장을 이끌며



정 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위로는 정 회장을 보좌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정 수석 부회장은 현대차의 미래차 투자 등 주요 경영 상황을 폭넓게 챙겼지만 이번 승진으로 정 회장에 이어 회사 경영을 이끌어갈 2인자로서 그룹경영 전반에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현대차그룹이 올 연말 인사를 대폭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 수석 부회장이 승진 후 미국 방문 등 신사업 발굴에 적극적이라 실무를 맡고 있는 부사장급 이하에서 대폭 승진 인사가 예상된다.

또 젊은 리더로 소통을 강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와 미래차 먹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정 수석 부회장의 색깔이 반영될 경우 대규모 세대 교체도 예상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국내 30대 기업의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각각 19.2년과 20.5년으로 1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30대 기업 평균 근속연수가 10.7년이라는 점에서 두 배 가까이 높다.

만 40세의 '젊은 총수'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취임 후 사내 행사에 참석하기



구광모 LG 회장

보다 현안 파악과 새로운 사업을 구상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LG그룹은 최고경영진과 임원을 대상으로 3, 5, 7, 10월 임원세미나를 개최했지만 구 회장 취임한 지난 6월 이후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LG그룹 인사는 오는 11월 말로 예상되고 있지만 다소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계열사별로 사업부장, 사업본부장, CEO 순으로 이어지는 연간 실적업무보고가 한창이다. 인사 시기는 다음 달 구 회장 주재의 사업보고회 이후가 될 전망이다며 6인의 그룹 부회장을 포함한 대폭의 인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구 회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관련 경험을 쌓았다는 점에서 4대 그룹 중 가장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높다. LG그룹이 전자적으로 힘을 주고 있는 AI 사업 관련 조직개편과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평가 받는 모바일 사업부와 최근 희망퇴직을 시행한 디스플레이 부문 인사도 관련 포인트다. 파격적인 영입인제도 가능하다는 게 LG 내부의 의견이다.

지난 7월 제9대 포스코 수장으로 취임



최정우 포스코 회장

한 최정우 회장도 연말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최 회장은 11월 초 취임 100일에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포스코 정기 임원인사를 매년 연초에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올 연말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최 회장이 인사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조직 쇄신과 개혁을 위해 물갈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 7월 27일 공식 취임식을 갖은 뒤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철강 부문은 지속적으로 고급화와 차별화 전략으로 강건히 해 나갈 것이라며 그룹사 사업을 재편하기 위해 올 연말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 ◆**삼성·SK, '신성장동력 확보 집중'**

삼성과 SK, 한화 등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기업의 조직 개편 등을 고민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올해 정기인사는 지난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전략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큰 변화를 주는 건 다소 무리

가 있어 대규모 인사는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 부회장이 지금까지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자동차 전장사업 등 '포스트 반도체' 발굴에 힘을 기울여 온 만큼 외부 인력 영입과 함께 조직개편 가능성이 예상된다. 반면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실적 둔화로 인해 승진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올해 부사장급 이하 임원을 중심으로 대폭 물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그룹에서는 오는 12월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임원과 직원 인사가 이뤄진다. 2016~2017년에 걸쳐 CEO 대부분을 젊은 인물로 채운 상황이어서 올해도 인사 수요는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SK는 'SK텔레콤 중간지주'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통신과 비통신의 균형을 위한 조직 구성,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가장 강조하는 '공유 경제'를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한 조직 변화 등이 있을 수 있다.

SK는 총수인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조대식 수석추진기획의회의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등 주요 경영진 상당수가 50대다.

한화그룹은 다른 그룹과 달리 연말에 한꺼번에 인사를 단행하지 않고 수시 인사를 진행하고 있어 비교적 조용한 연말이 예상된다. 하지만 한화그룹도 김동관 전무를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앞두고 있어 연말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화그룹은 김동관 전무가 이끌고 있는 태양광사업을 향후 주력 사업으로 육성시키고 있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달 주요 계열사인 한화큐셀, 한화토탈, 한화지상방산 등 3곳의 대표이사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삼성, 기어 브랜드 대신 '갤럭시'로 통일

'갤럭시 360·갤럭시 VR' 상표 등록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성 강조 전략

삼성전자가 스마트워치에 이어 차기 VR 기기와 360도 카메라 등에서도 '갤럭시' 브랜드를 사용한다. '기어' 브랜드는 사실상 폐지됐다.

7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초 미국 특허청에 '갤럭시 360' 상표와 '갤럭시 VR' 상표를 연달아 등록했다.

이에 따라 360도 카메라인 '기어 360'은 '갤럭시 360'으로, VR 헤드셋인 '기어 VR'은 '갤럭시 VR'란 이름으로 나올 것



한 소비자가 삼성전자의 VR 헤드셋인 '기어 VR'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으로 보인다.

갤럭시 VR과 갤럭시 360은 내년 상반기 갤럭시 스마트폰 10주년 기념작인 갤럭시S10과 함께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기어 360의 최신 제품은 2017년 갤럭시 S8 출시에 맞춰 공개된 제품으로 4K 해상도의 초고화질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이나 PC와 연결하면 유튜브, 페이스북, 삼성 VR 등의 플랫폼을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이 가능하다.

당시 함께 선보인 VR 헤드셋 '기어VR 위드 컨트롤러'는 자이로 센서, 가속 센서 등을 내장해 이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 오래 하면 어지러운 인터랙티브 게임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브랜드 변경은 갤럭시 스마트폰과의 통합적인 사용성을 강조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 LG전자 獨 특수유리 '미라듀어' 인덕션 출시

LG전자가 8일 독일 특수유리전문업체 쇼트사의 '미라듀어 글라스'를 적용한 디오스 인덕션 전기레인지 신제품 2종을 출시한다. 미라듀어는 특수유리로 다이아몬드 견출 만큼 긁힘에 강하다. 기존 전기레인지용 글라스의 마텐스 경도는 4수준인데 미라듀어는 10수준이다. 미라듀어를 인덕션 전기레인지에 적용한 것은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이다.

LG전자 인덕션 전기레인지는 ▲고성능 단열재를 사용해 용기로부터 열을 차단하고 ▲최적화된 코일 설계로 화력을 집중시키면서 ▲핵심부품을 보호하는 설계로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3중 고화력 부스터' 기술을 적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화력과 뛰어난 에너지 효율을 동시

에 구현했다.

가격은 출고가 기준 309만원(모델명: BEF3MT)과 209만원(모델명: BEI3MT)이다. LG전자는 5구 가스레인지 대체할 수 있는 760mm 폭의 와이드 3구 제품(인덕션 2구, 하이라이트 1구)과 가격 부담을 낮춘 2구 제품(인덕션 1구, 하이라이트 1구) 등 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 신제품 2종도 함께 출시해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혔다. 가격은 출고가 기준 각각 199만원과 99만원이다. /구서운 기자

## 정유사 3분기 실적 '好好'

정제마진·PX스프레드 상승 영향  
'난방 증가' 4분기 실적호전 기대

정유사들의 3분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최근 증권가에서 호전된 실적 추정치를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기간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정유사의 시차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유사가 원유를 국내로 수입해 판매하기까지 30~4일이 소요, 이 시간 유가가 오르면 제품의 단가도 상승해 정유사가 갖는 마진이 높아진다.

8일 IB업계에 따르면 정제마진, PX스프레드 상승 등으로 오는 3분기 정유산업의 3분기 실적호전이 예상되고 있다.

KB증권 백영찬 애널리스트는 "3분기 정제마진은 배럴당 6.8달러로 전분기 대비 1.1달러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3분기 PX스프레드(나프탄 원료 기준)는 1톤당 501달러로 전분기 평균 344달러 대비 157달러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PX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그는 "난방유의 수요가 증가하는 등 4분기에 실적호전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이 정제마진이 수익구간에 접어들면서 정유사들의 3분기 영업이익 또한 높게 점쳐진다. /김유진 기자 ujim6326@



국내 휘발유 가격이 6일 평균 1천659.6으로 약 3년 1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1천744.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7일 서울 시내 한 주요소 가격안내판에 휘발유 가격이 1천740원으로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손지우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올 3분기 SK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을 7589억원으로 추정했다. SK이노베이션의 전분기 영업이익은 8516억원, 전년 동기 영업이익은 9660억원이다.

또 S-Oil의 3분기 영업이익은 3725억원으로 내다봤다. S-Oil은 지난 2분기 4026억원, 지난해 3분기에 5532억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과 S-Oil의 높은 영업이익의 핵심은 정유 사업부다. 8월 중순까지만해도 좋지 못한 상황을 보였지만 이후 유가상승, 마진반등 효과로 인해 빠른 실적세를 보이고 있다. 화학에서도 PX 가격도 급반등하면서 실적강세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유진 기자 ujim6326@